

외고 1차 합격 후 면접에 가지 않을 시 사후 처리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외고 진학을 위해서 1차 서류 전형에 지원 후 합격했습니다. 한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며 일반고로 진학하겠다고 합니다. 면접에 불참하면 불합격 처리될까요? 이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또 바로 일반고 배정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_ 이승희(44·서울 송파구 오금동)

외고 입시에서 면접 전형 불참 시엔 불합격 처리되며 일반고로 배정됩니다.

외고 1단계 합격 후 면접에 불참하면 미응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지역의 경우 일반고는 ‘선 지원, 후 추첨’의 고교선택제를 실시한다. 학생의 지원 결과를 토대로 세 차례에 걸쳐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이때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등 학교장 선발고는 1단계에서 지원, 해당 학교 탈락 시 2단계부터 추첨 대상에 속한다”고 전합니다.

서울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내 모든 고등학교 중에서,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고에 속하는 학교 중에서 각각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합니다. (단,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1곳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가운데 지망 순위별로 1단계에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 2단계에서 40%를 전산 추첨해 배정합니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별 정원의 40%를 배정합니다. 이때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별 배치 여건, 적정 학급 수 등을 고려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외고 등 학교장 선발 고교 지원자는 1단계에서 탈락하면 일반고 배정 2단계부터 참여하게 된다. 2단계는 거주 지역 인근 일반고 2개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서 접수 시 기재하게 돼 있다. 지원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경우 배정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합니다. @

MORE TIP

지역에 따라 외고·국제고·자사고 탈락자들의 희망 일반고 배정 확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준화 지역의 경우 진학 희망 고교를 지망 순서대로 적어 지원하면 제1지망부터 차례로 배정합니다. 정원이 넘치면 무작위 추첨 배정하고 미배정 인원은 다음 지망 학교에 배정하는 식으로 학군 내 고교 정원을 채울 때까지 진행합니다.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1지망 지원자들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발고 탈락자들의 배정 확률이 극히 낮아지는 셈입니다. 취재 김한나 리포터 ybnni@naeil.com

중등교사가 되려면 꼭 사범대를 졸업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인 변화를 알고 싶습니다.

교사를 희망하는 중2의 학부모입니다. 아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를 위해 영어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되, 영어영문학과에 진학해 교직을 이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등교사가 되려면 꼭 사범대를 졸업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중등교사가 되는 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_ 이하영(46·서울 마포구 상암동)

앞으로 중·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를 졸업해야 하며, 2026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학교 공통 과목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 이수가 가능한 일반 학교에서 교직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통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도덕·윤리, 일반사회, 지리, 역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음악, 미술, 정보·컴퓨터, 기술, 가정을 말합니다. 대학 졸업 이후라면 교육대학원에 진학해 중등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공통 과목의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를 졸업해야 되므로 교원이 될 수 있는 경로가 줄어들 겁니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등 교원 양성 체제 발전 방안'에 따르면, 2020년 중등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약 2만 명인데 비해, 2022년 중등 임용시험 모집 인원은 약 4천 명입니다. 이런 변화는 수요에 비해 교원이 과잉 양성되면서 생긴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 양성이 필요한 공통 과목은 사범대와 사범계 학과(교육과)를 통해 인정적으로 양성한다. 교직 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중등 교원 양성 규모는 축소된다. 2024년에 교원 양성기관들을 평가한 후 2026학년부터 입학 정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중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6학년부터는 대폭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범계 학과(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속해 있지 않지만 학과명이 '○○교육과'인 학과를 말합니다. @

MORE TIP

이에 발맞춰 교직 과정과 교육대학원은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확대, 산업 구조 변화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는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신기술 분야의 교원 양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신규 분야 교직 과정은 입학 정원 30%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어, 영어처럼 자격증에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표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 김지영 리포터 jane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